

조직현장 탐방 / 부산 해운대구지회

‘6·25참전 유공자 명판 부착’ 사업으로 예우 표해

김정균 회장, 지방비보조금 대폭증액... 조직활성화에 기여



부산 해운대구지회(회장 김정균)가 1만2천여 명의 회원과 함께 ‘참전 국가유공자 사업’,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캠페인’, ‘야간순찰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민복 가치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연중 땀흘리고 있다. 사실 해운대구는 지역 16개 구·군 중에서 주민들의 생활편차가 가장 심한 곳이

다. 이러한 생활편차는 2017년 3월 김정균 회장 취임 후 조직에 새바람이 불며 조금씩 간극이 좁혀 지고 있다. 김회장은 구청으로부터 지방비보조금 중 운영비를 대폭증액 받아 지회운영과 각 단위조직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활성화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5월에 취임한 박필희 여성회장과 신규회원 영입에 힘써 50여 명의 회원도 확보했다. 해운대구지회의 특징적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25참전 유공자회와 연계한 ‘6·25참전 국가유공자 명판 부착’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6·25참전 유공자 중 12명을 우선 선정, 그

들의 거주지에 명판을 부착해 국가유공자로서 예우를 해주는 것으로 벌써부터 지역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둘째는 ‘독도 바로 알기 사진전’과 ‘통일기원 걷기대회’다. 여름 휴가철 송정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사진전은 매년 수만명의 피서객과 지역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으며 지회는 이들에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이와 연계해 진행되는 통일기원 걷기대회는 ‘턴 투워드 부산’이라는 추모행사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원이라는 지회 회원들의 조직강화의 장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

는 김장담그기 행사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행사이다. 지역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마음나눔 봉사단’을 중심으로 매년 관내 거주 탈북민 100여 명을 선정해 김장김치도 담그며 고향의 음식을 만들어 향수를 달래며 남한 정착에 특별히 도움을 주고 있다.

“제가 잘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지원해주시고 회원들이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한마음으로 살기 좋은 해운대구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라며 포부를 밝히는 김정균 회장의 다짐에서 ‘국민을 행복하게 국가에 도움주는’ 국민민복의 가치 실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박민수 KFF뉴스 기자)



포커스

한·미동맹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중요한 자산

작전통제권이란 전·평시 특정부대에 대한 정보 및 작전분야에 대해서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6·25 전쟁 당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작통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전환했다. 김정은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이 더 많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함께 제3차 핵실험까지 단행하자 한국은 전작권 전환의 재검토 필요성을 느꼈다.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 하겠다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조건의 충족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보원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 및 운영하는 것이다. 셋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관리되어야 한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47차 SCM(2015.11)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계획’이라는 전략문서를 채택했다. 그 결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50차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주요한 전략문서 몇 가지를 승인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미래 연합사 창설과 관련된 전략문서였다. 이로써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합의한 전략문서는 모두 4가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이다. 이것은 SCM에서 양국 합참의장 협의체인 한·미군사위원회(MC)에 하달할 전략지침이다.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연합사령부는 현재 연합사령부와 똑 같다. 단지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미래 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다. 미래 연합사령부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이 되며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이 된다. 주한미군도 계속 주둔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도 확고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사의 유지와 지원, 그리고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의 발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제50차 SCM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이 4가지 문서를 승인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10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군이 이런 조건을 구비했는지를 평가해서 그 결과가 긍정적이면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이다. 평가는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한·미 군 당국은 2019년에 미래 연합사 기반체계 구축 여부, 핵심군사능력 확보 여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그리고 한국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할 것이다.

제50차 SCM의 가장 큰 성과는 연합사의 존속이고 더 큰 성과는 현재의 연합사를 그대로 계승한다는 것이었다. 미래연합사는 한국 주도의 연합사 체제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현재 연합사와 기능과 역할, 그리고 편성이 똑 같으며 유엔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고 주한미군도 그대로 주둔한다. 제50차 SCM을 통해 양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 이후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한 동맹의 역할을 모색하자”고 했다. 한·미동맹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한국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본 기사는 <자유마당> 2018년 12월호 내용을 발췌한 것임.